

일반고 학생 희망과 그릿의 군집유형별 학교행복의 차이

김진철^{1*}, 김창길²

¹교육부 교육연구원, ²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조교수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hope, grit, and school happiness by cluster type

Jin-Cheol Kim^{1*}, Chang-Gil Kim²

¹Education Inspector, Ministry of Education

²Assistant professor, 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요약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희망, 그릿, 학교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희망과 그릿의 군집별 학교행복 차이를 알아보았다. 세종시 비고 2, 3학년 282명 자료를 상관분석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했다. 연구결과, 희망과 그릿 및 학교행복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희망 주도사고와 그릿 노력지속성 간 상관관계가 높았다. 다음으로,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은 4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학교행복은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고, '높은 주도사고'와, '높은 경로사고'는 차이가 없으며, '낮은 심리자본' 이 가장 낮았다. 연구결과, 일반고 교육과정에 주도사고와 노력지속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실제적 측정을 위한 설문지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희망, 그릿, 긍정심리학, 학교행복, 군집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hopes and the school happiness of each cluster of grits.

Method: 282 high students' response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Results: Firs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ope and grit and school happiness. Second, Hope and Grit appeared in four clusters. School happiness had the highest "high psychological capital" group and the lowest "low psychological capital."

Conclusion: It was discussed that the agency thinking and effort perseverance of gr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general high schools. In addition, we propose to develop questionnaires for practical measurements.

Key Words : Hope, Grit, Positive psychology, School happiness, Cluster analysis

1. 서론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감정보다는 개인이 갖는 강점, 미덕 등 밝은 면을 통하여 적응하고 창의적이며 자기실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응 및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인프라 등 학교 교육

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삶의 질, 또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행복과 관련하여 긍정심리학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은 전통적으로 성적, 경제 등 객관적, 외현적인 것보다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ing)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은 영역-특수성(domain specificity)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1].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으로서 희

*Corresponding Author : Jin-Cheol Kim(jin1789@korea.kr)

Received May 18,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July 4,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망(Hope)과 그릿(Grit)을 통하여 학교행복을 이해하고자 했다.

희망(Hope)은 인간행동은 목표-지향적이라고 가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적 동기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들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희망은 목표(Goal),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2].

또 다른 변인으로서 그릿(Grit)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와 열정으로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하는 심리변인이다[3]. 하위변인은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구성되었고, 그릿은 수행과 성공을 이끄는 핵심요소라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편, 희망과 그릿 연구는 하위변인 간의 명확한 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합산으로 연구하면 왜곡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희망과 그릿의 각각 하위변인들은 기능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요인별 프로파일 분석이 필요하다[4].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군집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학교행복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타 연구와 차별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고 학생들의 발달하는 희망과 그릿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혁신 방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고등학생의 희망과 그릿 하위변인에 따른 군집집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일반 고등학생의 희망과 그릿 군집별 학교행복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학교행복

전통적으로 행복은 외현적인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행복을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하위개념으로 심리적 안녕 개념과 주관적 안녕 개념이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5]. 또한, 학교행복은 학생들이 처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을 이해해야 한다[6]. 따라서 학생의 안정적인 심리상태 외에도 관계성이나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행복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과 이에 따른 정서적 안녕상태라고 보았다. 그리고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의 프로파일 접근을 통해서 학교행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2.2 희망(Hope)

희망은 모든 인간행동은 목표-지향적이라고 가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방법들을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적 동기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들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2]. 희망은 목표(Goal),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 목표는 개인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해야 할 수 있으며 가능성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경로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이 설정한 계획이나 방법을 의미하며, 주도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부여한다[2]. 주도사고는 목표추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도 이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달성의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7]. 그리고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상호보완적이므로[8], 희망 하위변인의 조합에 의한 학교행복의 확인이 필요하다.

2.3 그릿(Grit)

그릿은 “비교적 장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발휘하는 지속적 열정과 인내”를 말한다[3]. 그릿은 긍정심리학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발달 과업에서 핵심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성공적 결과를 낳게 하는 긍정변인으로 밝혀졌다[9]. 그릿은 노력의 지속(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이루어졌다[3]. 노력 지속성은 인내를 의미하는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흥미 일관성은 열정을 표현하는 데,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목적과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10]. 그릿에서의 인내는 학교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으며[11], 그릿은 영역-특수성(domain-specific)을 갖는다[12]. 이는 노력 지속과 흥미 일관성을 분리하여 프로파일별 접근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표집은 세종특별자치시 B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기간은 2019년 12월 19일(목)에서 23일(화) 까지 담당교사의 설명 후에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했다. 총 299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17명 자료 결측치(missing data)는 완전제거(listwise deletion)방식으로 실시하여 총 282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2학년은 144명(51.1%)이고 3학년은 138명(48.9%)이었다. 성별은 여자 156명(55.3%)이고, 남자 126명(44.7%)로 분포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학교행복

본 연구의 학교행복 척도는 김종백과 김태은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6]. 도구는 학교행복의 인지, 정서, 관계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고, 학교상황 맥락이 고려되었다.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전혀 아님 ~ 매우 그렇)로서 하위변인은 총 24문항이다. 하위변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의 즐거움, 심리적 안정은 각 4문항씩 구성되었다. 본 자료의 하위변인별 신뢰도(α)는 친구관계 .820, 교사관계 .832, 자기효능감 .835, 환경만족 .801, 학습활동의 즐거움 .798, 심리적 안정은 .841 이었다. 전체 신뢰도는 .859로 나타났다.

3.2.2 희망

본 연구의 희망은 김택호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했다[13].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7문항, 주도사고(agency thinking) 7문항, 그리고 증립(filter) 변인 4문항으로 자기보고식 5점 Likert(매우 아님~매우 그렇) 방법으로 측정되며 증립문항은 채점하지 않았다. 자료의 하위변인별 신뢰도(α)는 경로사고 .801, 주도사고는 .867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872이다.

3.2.3 그릿

Duckworth의 Grit-S 버전을 우리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하여 사용했다[14].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 등

2요인으로 각각 자기보고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단계 Likert식(전혀 아님 ~ 매우 그렇) 측정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흥미 일관성이 .752, 노력 지속성이 .85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42이었다.

3.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을 표준점수화해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했다[15]. Ward 방법으로 군집수를 판단했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변화 폭과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군집을 추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희망 및 그릿의 확인적 요인분석

외국에서 제안된 희망과 그릿 척도에 대하여 제안한 개념구조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희망과 그릿의 요인분석 적합도는 χ^2 값이 비록 유의미하더라도 TLI, CFI가 모두 .90 이상이고 RMSEA가 .08 이하이므로 두 척도 모두 2요인 상관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16].

Table 1. goodness-of-fit of the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Hope (two Factor Correlation)	502.425**	76	.903	.911	.075
Grit (two Factor Correlation)	125.807**	34	.906	.929	.072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희망의 하위변인, 그릿의 하위변인 및 학교행복의 하위변인과 행복총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행복총점은 희망의 주도사고과 강한 상관이 있고, 희망의 경로사고, 그릿의 노력지속성은 뚜렷한 상관이었다. 연구변인들의 첨도(kurtosis)와 왜도 모두 절대값 2이하, 첨도 모두 절대값 7이하로서 다 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했다[16].

Table 2.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Variables		1-1	1-2	1-3	2-1	2-2	3-1	3-2
Hope	1-1 Pathway	-						
	1-2 Agency	.767**	-					
Grit	2-1 Consistency	.255**	.358**	-				
	2-2 Perseverance	.637**	.749**	.435**	-			
School happiness	3-1 Friend	.497**	.531**	.251**	.594**	-		
	3-2 Teacher	.488**	.501**	.166	.449**	.435**	-	
	3-3 Self-efficacy	.620**	.782**	.290**	.685**	.505**	.585**	-
	3-4 Environment	.432**	.552**	.122	.475**	.368**	.611**	.664**
	3-5 Learning	.561**	.639**	.206**	.615**	.430**	.627**	.738**
	3-6 psychological stability	.407**	.568**	.400**	.558**	.498**	.264**	.519**
	3-7 Total score	.646**	.742**	.253**	.693**	.685**	.808**	.853**
M	21.54	23.53	20.30	21.67	15.10	14.06	13.15	
SD	4.32	5.50	5.15	5.84	3.39	3.76	3.25	
Skewness	-.32	-.03	.07	-.01	-.67	-.41	-.14	
Kurtosis	.29	-.57	-.67	-.79	.33	-.01	.09	

**<.01

4.3 희망과 그릿의 군집 분류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들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Wards의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해석, 군집도표,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4가지 군집으로 유형화했다. 그 후, K-평균군집화 분석(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을 통해서 사례별 소속군집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군집분석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79명(27.3%), 군집 2는 93명(32.3%), 군집 3은 52명(17.9%), 군집 4는 65명(22.5%)로 표출되었다. 군집 1은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들이 모두 높아 '높은 심리자본'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주도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아 '높은 주도사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경로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아 '높은 경로사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들이 모두 낮아서 '낮은 심리자본' 집단으로 명명했다.

Table 3. Standardized scores of four clusters

(N=289)

Variabl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Pathway	.94495	-.01818	.05931	-1.39383
Agency	1.06277	.03700	-.86714	-1.27579
Consistency	.98159	-.36294	-1.16837	-.09431
Perseverance	1.14856	-.02053	-1.27716	-1.08446
n(%)	79(27.3)	93(32.3)	52(17.9)	65(22.5)

군집별 점수는 표준점수(M=0, SD=1)

한편, 군집별 변량분석 결과, 군집별 모든 하위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p<.001$)가 있었다.

Table 4. Mean differences by clusters

Variable	Cluster1 (n=79)	Cluster2 (n=93)	Cluster3 (n=52)	Cluster4 (n=65)	F	P
	Both High	High Agency	High Pathway	Both Low		
	M(SD)	M(SD)	M(SD)	M(SD)		
Pathway	25.63(2.37)	21.46(2.51)	21.80(3.65)	15.50(2.87)	158807	.001
Agency	29.39(3.16)	23.74(3.05)	18.76(2.77)	16.50(2.98)	219879	.001
Consistency	25.36(3.31)	18.43(3.66)	14.28(3.88)	19.81(4.80)	78583	.001
Perseverance	28.39(2.76)	21.55(3.07)	14.20(3.66)	15.33(2.76)	273181	.001

**<.01

4.4 일반고 학생의 희망과 그릿의 군집유형별 학교 행복의 차이

군집별 학교행복의 평균 차에 대한 다 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과 사후검증을 했다.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학교행복의 하위변인들이다. 우선, 다 변량 검증 결과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 루트의 경우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학교행복의 하위변인들은 통계적 차이가 존재했다. 학교행복의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의 즐거움, 심리적 안정의 Levene 검증결과, 모두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여 Scheffe의 사후검정을 했고,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검정은 Dunnett T3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일반고 학생의 친구관계는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고, '높은 주도사고'가 다음으로 높으며, '높은 경로사고'와 '낮은 심리

자본'은 차이가 없다. 행복의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 심리적 안정 변인은 역시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고, '높은 주도사고'와 '높은 경로사고'는 차이가 없으며, '낮은 심리자본'이 가장 낮다. 한편, 총점에서는 역시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고, '높은 주도사고'와, '높은 경로사고'는 차이가 없으며 '낮은 심리자본'이 가장 낮다.

Table 5. Mean differences of School happiness by clusters

Variable	Cluster1 (n=79)	Cluster2 (n=93)	Cluster3 (n=52)	Cluster4 (n=65)	F	Schfsee
	Both High	High Agency	High Pathway	Both Low		
	M(SD)	M(SD)	M(SD)	M(SD)		
Friend	17.50(1.95)	15.21(2.70)	12.04(3.81)	11.65(3.62)	42.995**	1)23.4
Teacher	16.50(2.75)	13.48(3.63)	14.24(3.17)	11.67(4.46)	24.755**	1)23.4
Self-efficacy	16.30(2.07)	12.88(2.35)	11.56(2.66)	9.80(2.42)	93.033**	1)23.4
Environment	15.25(3.19)	12.74(2.78)	12.36(1.89)	10.12(2.77)	27.619**	1)23.4
Learning	16.18(2.55)	12.92(2.94)	12.48(2.80)	10.49(3.21)	46.049**	1)23.4
Total score	14.32(2.82)	12.16(2.83)	8.70(2.25)	9.67(2.71)	53.516**	1)23.4

**<.01

5. 논의

5.1 일반고 학생 희망, 그릿 및 학교행복 관계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 그리고 학교행복의 하위변인과 총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졌다. 그리고 행복 총점을 보면 희망의 주도사고와 그릿의 노력지속성과 상관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의 학교행복은 외적인 삶 외에도 학교상황에 대한 경험의 지각이 긍정적이고 정서가 긍정적인 심리자본들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희망과 행복감의 긍정관계가 있으며 특히 주도사고가 행복감에 대하여 설명력이 유의하다고 보고한 김영희와 고태순의 결과와 동일하며[17], 주도사고가 부적응 문제에 대하여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8]. 그릿(Grit) 또한 학생들의 성취, 진로 등 일반적인 성공 외에도 학교행복과도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행복의 지향의 형태 중에서 의미 있는 참여 추구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9]. 또한, 희망과 그릿 모두 인간의 강점이나 인간성장에서의 긍정 지향적인 속성을

갖는 심리자원이기 때문에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그릿은 수행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학교행복과도 관계가 있고 특히 노력지속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2 군집분류

희망의 하위변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그릿의 하위변인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4개 군집이 가장 차별적 특성과 개념적 설명이 잘 되도록 나타났다.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설정하여 4개 군집을 보면, 군집 2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동기 부여를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희망과 그릿의 수준에 따른 분류를 보면 동기요소가 많이 내재된 집단에 가장 많이 표출되고 있었으며,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3 일반고 학생의 군집유형별 학교행복

학교행복 총점은 희망과 그릿의 하위변인 모두 높은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고, '낮은 심리자본'이 가장 낮았다. 이는 희망과 그릿이 높으면 학교행복도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희망의 하위변인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행복의 총점에서 희망보다는 그릿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구관계에서는 역시 '높은 심리자본' 집단이 가장 높았고, '높은 주도사고'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높은 경로사고'와 '낮은 심리자본'은 차이가 없었다. 즉, 관계성에 있어서는 희망의 주도사고가 경로사고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감을 예측함에 있어서 주도사고가 중요함을 의미한다[20]. 즉, 일반고 학생들의 학교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주도사고의 증진 요소가 많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그릿의 하위변인이 모두 높은 군집이 가장 학교행복이 높다는 결과 역시 그릿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21,22]을 지지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그릿의 두 하위요인이 모두 높으면 환경적응이 매우

빠르고 자율성이 높아져 자신의 학교생활의 의미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학교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높은 그릿의 집단이 강박적 그릿이나 소극적 그릿 집단보다 기본심리 욕구, 삶의 만족 및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밝힌 결과[23]과 그릿이 높은 사람은 의미추구의 경향도 높다고 주장한 점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14].

6. 결론

본 연구는 긍정심리 변인으로서 희망과 그릿이 일반고 학생들의 학교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일반고 교육과정에 자기가 목표한 것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는 주도사고를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노력지속성으로 동기를 제공받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과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 수업방법의 확대, 실험실습에서의 자기주도성 실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얻는 지식을 적용하고 나누는 교육과정의 구안이 필요하다. 희망에서는 경로나 주도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적합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릿에서도 흥미관점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나 노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변인이 모두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실제적인 측정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지 형식을 구성함에 조직구성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zma, A., Stone, S. & Stone, S., Stones, M. J. (2000). *Stability in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Implications for SWB structure*. In Diener (Ed.), *Advances in quality of life inquiry and research*.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2]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3]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4] J. C. Kim. (2015). *The influence of hop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evalu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inking Development. a presentation at an academic conference. Track D.
- [5] B. K. Park & S. P. Hong.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159-175.
- [6] J. B. Kim & T. E. Kim.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1), 259-279.
- [7] H. I. Cho.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ope Scale for the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2), 323-342.
- [8] Snyder, C. R., Irving, L. & Anderson, J.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9] West, M. R. et al. (2014).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8(1), 148-170.
- [10] B. S. Jang & J. C. Ki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Teachers' Grit and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4), 9-14. DOI : 10.22678/JIC.2020.18.4.009
- [11] Oriol, X., Miranda, R., Oyanedel, J. C. & Torres, J. (2017). The Role of Self-control and Grit in Domains of School Success in Student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8, 1664-1078.
- [12] Cormier, D. L., Dunn, J. G. H. & Dunn, J. C. (2018).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 349-354.
- [13] T. H. Kim.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3), 465-490.
- [14]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15]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6]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17] Y. H. Kim & T. S. Ko. (2014). Relationships among Hope, Empathy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330-338.
DOI : 10.5392/JKCA.2014.14.10.330
- [18] Cramer, K. M. & Dyrkacz, L. (1998). Differential Prediction of Maladjustment Scores with the Snyder Hope Subscales. *Psychological Reports, 83*, 1035-1041.
- [19]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DOI : 10.1080/17439760.2014.898320
- [20] H. K. Lee. (2007).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Subgroups of Hope and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51-766.
- [21]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DOI : 10.1037/pspp0000102
- [22]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Spec Issue)*, 40-45.
- [23] J. E. Kim. S. R. Lee & S. J. Yang. (2018).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Grit: Examining Multidimensional Clustering of Gri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4(2)*, 131-151.
DOI : 10.20406/kjcs.2018.5.24.2.131

김진철(Jin-Cheol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1985년 9월~현재 : 중등교사, 교감, 장학관, 교육부 교육 연구관, 중국 장쑤성 쑤저우 재외교육기관장
- 관심분야 : 교육심리, 교육과정, 인지심리
- E-Mail : jin1789@korea.kr

김창길(Chang-Gil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16년 2월 :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9년 8월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00년 3월~2021년 2월: 교육부, 세종시교육청
- 2021년 3월~현재 :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정책, 교육안전, 행정조직
- E-Mail : cgk22@hanmail.net